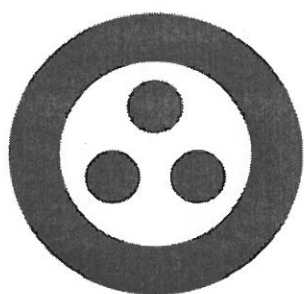


# 포살법회 의식집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 예 불 <칠정례>

계향 정향 혜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광명구름 두루하여 시방세계 한량없는 삼보님전 공양합니다.

헌향진언 (향 올리는 진언)

옴 바아라 도비야 훔 (3번)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스승이며 모든 중생 어버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가르침에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부촉받은 십대제자 십육성  
오백성 독수성 내지 천이백 아라한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 전한 역대조사 천하중사  
한량없는 선지식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스님들께 절하옵니다.

다함없는 삼보시여, 저희 예경 받으시고, 가피력을 내리시어,  
법계중생 모두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 ◆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摩訶般若波羅密多心經) ◆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 상 행 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멀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 상 행 식도 없으며,  
안 이 비 설 신 의도 없고,  
색 성 향 미 촉 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 집 멸 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3번)

## 붓다로 살자 포살 의식문

### ■ [예경삼보]

지극한 마음으로, 일체의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저두려]

지극한 마음으로, 일체의 법보님께 예경합니다. [저두려]

지극한 마음으로, 일체의 승보님께 예경합니다. [저두려]

다함없는 삼보시여 저희이제 포살하니

가피력을 내리시어 증명하여 주옵소서. [저두려]

### [현향개]

바라건대 미묘하온 이향운이

시방세계 모든국토 두루하여서

한량없는 향 장엄 이룩하옵고

위없는 여래공양 이루지이다. [저두려]

### [개경개]

위없이 심히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겁 지난들 어찌 만나리.

제가이제 보고듣고 받아 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뜻 알아지이다. [저두려]

### ■ 계본 낭송 [송계 법사 등단] - [저두려]

여러 불자들이여 지극한 마음으로 들으시오

붓다로 사는 주인공은 청정한 삶의 향기로 널리 세상을 장엄합니다. 그 향기는 이 계와 청규가 바탕이 되니, 계와 청규를 지니는 것은 어두운 데서 밝음을 만남이며,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음이며, 병든 이가 병이 나음이며, 갇힌 이가 풀려남이며, 길을 잃고 방황하던 이가 집을 찾아 돌아옴과 같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서는 당신이 세상에 더 계시더라도 이와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며, 해야 할 좋은 일은 기꺼이 실천하고, 널리 세상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보살의 지계입니다. 삶을 지혜롭게, 마음을 자비롭게, 세상을 평화롭게 지금 여기 붓다로 살기를 서원하는 사부대중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이면 항아리를 채우듯이, 우리의 작은 허물도 경계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삶의 무거운 질곡이 됩니다. 포살 의식을 통해 자신의 허물을 용기 있게 드러내어 참회하면 개인의 청정이 회복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부촉하신 오계와 청규를 말하고자 합니다. 대중은 잠잠히 듣고 만약 스스로 허물이 있는 줄 알면 드러내어 참회하십시오. 참회하면 안락하고, 참회하지 않으면 허물이 더욱 깊어집니다. 머리 숙이며 부르는 ‘나무석가모니불’ 일곱 글자는 자신의 허물을 정화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계와 청규를 새롭게 지키겠다는 다짐입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대중이 청정함을 알 것입니다. 대중은 합장하고 정성스럽게 귀 기울이십시오.

불자여,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결코 산목숨을 죽이거나 폭력을 행하지 말고 자비심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불자의 계이니, 이 목숨 다하도록 지킬지니라.  
(나무 석가모니불) [저두례]

불자여, 아낌없이 베풀어 주고 결코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지니, 널리 보시를 행하여 복덕을 지으라. 이것이 불자의 계이니, 이 목숨 다하도록 지킬지니라.  
(나무 석가모니불) [저두례]

불자여, 항상 청정한 행을 하고 결코 사음을 행하지 말지니, 몸과 마음에 청정한 행을 닦으라. 이것이 불자의 계이니, 이 목숨 다하도록 지킬지니라.  
(나무 석가모니불) [저두례]

불자여, 진실을 말하고 신뢰를 지킬지니, 결코 망어를 하지 말라. 이것이 불자의 계이니, 이 목숨 다하도록 지킬지니라.  
(나무 석가모니불) [저두례]

불자여, 정념을 지키고 결코 술을 마셔 취하지 말지니, 언제나 밝고 통달한 지혜를 호자하라. 이것이 불자의 계이니, 이 목숨 다하도록 지킬지니라.  
(나무 석가모니불) [저두례]

불자여, 매일 삼보에 예경하고, 자신이 서약한 수행일과를 성실히 행하며, 행한 대로 기록하라. 이것이 불자의 청규이니, 이 목숨 다하도록 지킬지니라.

(나무 석가모니불) [저두레]

불자여, 날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선행을 실천하고 매일 천 원 이상 보시하라. 이것이 불자의 청규이니, 이 목숨 다하도록 지킬지니라.

(나무 석가모니불) [저두레]

불자여, 만나는 모든 존재를 붓다로 존중하여 모시며, 웃는 얼굴로 합장 공경하여 먼저 인사하고, 환대하라. 이것이 불자의 청규이니, 이 목숨 다하도록 지킬지니라.

(나무 석가모니불) [저두레]

불자여, 귀 기울여 듣고, 그 뜻에 공감하며, 자비롭게 말하라. 이것이 불자의 청규이니, 이 목숨 다하도록 지킬지니라.

(나무 석가모니불) [저두레]

불자여, 어떤 상대라도 비난하지 않으며,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라. 이것이 불자의 청규이니, 이 목숨 다하도록 지킬지니라.

(나무 석가모니불) [저두레]

불자여, 이웃 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하라. 이것이 불자의 청규이니, 이 목숨 다하도록 지킬지니라.

(나무 석가모니불) [저두레]

불자여, 소욕지족의 정신으로 단순 소박한 삶을 살며, 육식을 줄이고 과식하지 말라. 이것이 불자의 청규이니, 이 목숨 다하도록 지킬지니라.

(나무 석가모니불) [저두레]

불자여, 물과 전기를 아끼고 쓰레기를 줄이며, 가까운 거리는 걷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다소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여 자연 환경을 보살피라. 이것이 불자의 청규이니, 이 목숨 다하도록 지킬지니라.

(나무 석가모니불) [저두레]

불자여,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마을과 지역사회를 위해 참여하라.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사회적 약자를 힘써 도우라. 이것이 불자의 청규이니, 이 목숨 다하도록 지킬지니라.

(나무 석가모니불) [저두례]

불자여,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고 생명평화와 정의를 실천하라. 이것이 불자의 청규이니, 이 목숨 다하도록 지킬지니라.

(나무 석가모니불) [저두례]

불자여, 정기적으로 법회에 참석하여 배우며 세상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가족부터 이웃까지 널리 법을 전하라. 이것이 불자의 청규이니, 이 목숨 다하도록 지킬지니라.

(나무 석가모니불) [저두례]

#### ■ 회향

□ 석가모니불 정근 [정근 시작 때 송계법사 하단]  
나무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21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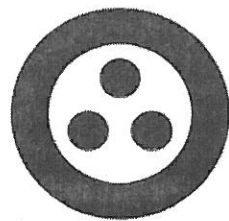
#### 탄백(歎白)

빛나올사 거룩하신 석가모니불  
시방세계 무엇으로 견주어보리  
이 세상 모든것을 다 보았지만  
부처님만 하온성인 다시없어라. [저두례]

#### □ 회향게

포살하온 크신공덕 수승한행의  
가 없고 크신복덕 회향하오니  
바라건대 고해속의 모든중생이  
어서속히 무상정각 이루지이다. [저두례]  
마하반야바라밀. [저두례]

#### ■ 마음나누기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